

남원 용북중, 전북 첫 'IB 후보학교' 승인

PYP 운영하는 전주아중초도 승인 진행 중

남원에 위치한 용북중학교가 국내 첫 번째 IB(국제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승인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IB(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는 용북중학교를 IB 후보학교로 승인했다. 현재 용북중은 IB 중학교 과정 프로그램(MYP)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용북중은 언어와 문학, 언어 습득, 개인과 사회, 체육과 보건, 과학, 수학, 예술, 디자인 등 8개 교과 간 학문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각도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체계적 맥락으로 탐구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초등학교 과정 프로그램(PYP)을 운영하는 전주아중초등학교도 후보학교 승인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IB 프로그램은 도교육청과 IB가 함께 '관심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월드스쿨)'라는 인증 단계를 지속적이며 책임감 있게 컨설팅·관리한다.

초등학교 프로그램(PYP)과 중학교 프로그램(MYP)은 후보학교부터 본격

적인 IB 수업 운영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과정 프로그램(DP)은 월드스쿨 인증을 거쳐야 IB 수업이 가능하다.

후보학교 승인 받은 학교는 IB로 부터 △IB 교수학습자료센터 사용 △컨설턴트 배정을 통한 컨설팅 △IB 프레임워크(교수·학습 체계) 적용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본격적인 IB 수업과 평가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부터 IB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거쳐 2023년 IB 준비학교 시범 운영, 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했다. 지난

3월 21일 IB와 협력각서(MOC)를 체결하고, 4월부터는 대학과 연계해 IB 인증교사(IBECE)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우리 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IB본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인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때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IB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해 전북교육 대전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입지원단, 수시 진학지도 준비 만전

교사-진학부장 전문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6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대입지원단 교사와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테마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대입 수시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2025 수시 지원전략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의대 증원과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한 마련된 이날 연수는 △전국고 문희태 교사의 '의대 증원과 무전공학과 신설 등을 고려한 수시 지원 전략'과 △장봉고 조창영 교사의 '전북지역 대학 수시 지원전략 안내' △영동고 윤상형 교사의 '수도

권 대학 중심 수시 지원전략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진학 전문가인 대입지원단 교사와 진학부장의 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전반적인 대입 진학지도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최근 의대 증원 확대 등 극적인 대입 변화로 일선 학교에서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진학지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학지도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미산초, 에코시티 부지로 이전 확정... 78.4% 찬성

현 미산초는 분교로 운영

전주미산초등학교가 에코시티 내 부지로 이전이 확정됐다.

4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주미산초 이전 및 분교장 운영을 위한 학생·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4%가 찬성했다.

전주미산초 이전 및 분교장 운영 설문조사 선거인수는 학생 45명, 학부모

32명이며, 전날 실시된 찬반투표에는 학생 전원, 학부모 29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미산초에서 지난 3일 오후 12시50분부터 현장 설문조사 방식 투표에 참여했고, 학부모들은 같은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찬반투표를 했다. 그 결과 학생은 34명, 학부모는 24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20년부터 추진된 에코시티 제3초등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대 운영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에코시티 제3초는 총사업비 360억원(교육부 신설교부금 242억원)이 투입돼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된다. 현 미산초는 분교장으로 운영된다. 미산초에는 교육과정운영비와 학생복지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지원

금으로 10년간 총 6억원이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주 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미산초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전 신설되는 미산초와 분교로 운영될 현 미산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대, 첨단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한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전북대학교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메카노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외 첨단 의료기기 산업 확대와 지역 전문인력 수요에 맞춰 현장실습 중심의 의료기기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사)캡티브젯기술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사업 선정에 따라 각 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4억원 등 총 22억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 장비를 구축하고 기초와 실습, 심화 교육과정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관련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및 실무 중심의 의료기기 생산 전문 기술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혁신 의료기기 연구·개발·생산·비임상 실증과 관련된 기업지원 및 기초 교육에 필요한 장비 시설 인프라가 전북대 병원을 중심으로 캠퍼스에 집적화 돼 가고 있다"며 "앞서 구축된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와 올해 완공 예정인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와 연계해 메카노바이오 혁신의료기기 전주기 체계를 완성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5일 이틀간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초·중·고 교장과 교감, 교육지원청 국(과)장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부서·사업별로 학생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초등학교 4개교·중학교 5개교·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5개교는 교육부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학생

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중북과 사각지대를 없애 온전한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총 4회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이덕만 국회의원조사처 연구관, 박지애 교육부 사무관, 신연옥 서울방화초 교장이 강사로 참여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법률안 주요 내용 △학생맞춤통합지원 의미와 정책 방향 △실제 학교 운영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김윤상 기자

광고·구독문의 283-2700



'충주맨'으로 유명한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연화관에서 '유튜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4일 교육연수원 연화관에서 '충주맨'으로 유명한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을 초청해 '충주시 유튜브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주제로 지방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북교육연수원,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초청 교육

실시했다. 김선태 주무관은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통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정책 홍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연간 61만원의 예산으로 구독자 73만명, 전국 지자체 유튜브 구독자 1위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 김선태 주무관은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개인도 조직을 바꿀 수 있다. 틀을 깨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더 늦기 전에 지금, 전주!

아시아 여행 명소 3위

-로리 플래닛 선정 (2016) CNN

대한민국 음식수도

-더 가디언 선정 (2018)

가장 한국적인 도시

-트래블러 선정 (2018)

